

• 누가복음 10:38-42

**십계명은 단순히 법령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은 주로 '지킨다'는 말과 함께 사용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2:36-40).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향한 말씀도 '먼저 마음과 뜻을 헤아리라'는 것이었습니다(눅 10:41-42).**

스캇 솔즈는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 주라》에서 이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마르다야,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를 통해 네가 변해야 한다.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먼저 네가 내게 영향을 받아야 한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뛰어다니기 전에 나를 통해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를 섬기고 먹이려면 먼저 내가 너를 섬기고 먹이게 해야 한다.”

**우리 힘으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주님과 관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며 방향입니다. 주님 없이 분주한 24시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1시간이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행동'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이란 구호는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리와 정의 안에 사랑과 은혜의 큰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행하되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계명이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는 계명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 ①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 ② 마음(행동)뿐이니까, 행동(마음)도 함께이니까?